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Asan Medical Center Intensive Care Unit

아낌없이 주는 나무

ICU NEWSLETTER

발행인 임채만 TEL 02-3010-4700 FAX 02-3010-4709

Vol. 48 July 2017

간호사 칼럼

최애란 간호사 (NSICU)

입사 초반에 선배 간호사로부터 몸이 아파 쓰러지더라도 병원에 와서 쓰러져야지 아파서 못나온다는 전화를 하는 것은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물론 몸이 아픔에도 병원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 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건강하게 출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나의 건강이 늘 내 마음대로 되는 것dl 아님은 모두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무가 정해지면 적어도 그 시간에 내게 배정된 환자 혹은 팀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 상 한 명의 간호사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업무에 크나 큰 차질을 주거나, 휴식이 필요한 다른 간호사를 대신 출근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간호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강의의 마지막에는 간호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여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때 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었다. 사례의 내용은 이러했다.

「Day 출근 예정이던 나는 출근 전날 밤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당일 새벽에는 38.8도의 열이 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며 온 몸에 근육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는 병동에 전화를 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인가? 아니면 몸이 좀 아프지만 출근해서 근무를 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 사례를 발표한 조원의 선택은 몸이 좀 아프지만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입사 초반에 나와 나의 선배의 마음처럼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병원에 출근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그 이유는 물론 다른 간호사에게 대신 출근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간호사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은 불안하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나에게 수술 후 Lung care를 하던 환자가, "기침은 내가 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하고 있으니 원.."이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그때 환자는 불안했을 것이고, 나는 몹시 불편하고 힘들었다. 두 번째 문제는 몸이 좋지 않은 간호사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바쁘고 빠른 판단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가 잘못 되었을 때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가끔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주어진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런데 간호사 본인의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인가?

임상 의료 윤리 상황은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이쪽을 선택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을 선택해도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각자의 선택은 다르나 가급적이면 가장 해가 적고, 이익이 많은 혹은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나의 결정은 달라졌다. 10여 년 전에는 쓰러져도 병원에 와서 쓰러지려 했다면, 이제는 몸이 그리 좋지 않다면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출근하기 어려우니 Day 근무로 출근 할 수 있는 다른 간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날에 그 간호사 대신 출근해 일하겠다고 말하겠다. 또 내가 일하고 있는데 다른 간호사가 어렵게 그런 전화를 내게 한다면, 그 간호사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다른 인력을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 입사하는 간호사에게 누가 아파도 병원에 와서 쓰러져야 한다고 말한다면, 쓰러지기 전에 전화하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2017년이고, 내가 일하는 곳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이니 말이다. 물론 이런 일은 나에게도, 다른 간호사에게도 힘든 상황이니 가급적이면 모든 간호사가 아니 모든 병원의 직원이 건강했으면 하고 바란다.

풍납동 서당

초근목피 草根木皮

풀 초 草, 뿌리 근 根, 나무 목 木, 가죽, 껍질 피 皮

뜻) 풀 뿌리와 나무 껍질. 곡식이 없어 산나물 따위로 만든 험한 음식을 이르는 말

예문) 세상에는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ICU News

MICU1

- 7월 신입간호사 : 임정은
- 부서 워크샵 (7/28)

MICU2

- 7월 신입간호사 : 오유정
- 필통과정(7/4) : 영상의학팀 ↔ 서관 ICU
- Group Refresh 활동 (7/19)

SICU1

- 7월 신입간호사 : 정원정
- 부서이동 (8/1) : 장정현 → 장기이식센터
- 필통과정(7/4) : 영상의학팀 ↔ 서관 ICU

NSICU

- 7월 신입간호사 : 최병찬
- NSICU 워크샵 (7/5) : 간호 보관팀을 논하다

NRICU

- 부서이동 (8/1) : 권지혜 → 산부과 외래
- 중환자실 전담 약사 변경 : 김윤경 → 한승희

CCU

- 7월 신입간호사 : 전은향

NICU1

- 2007 Fetal treatment center workshop (7/9): 김희영 외 1명
- 13th Japan-china-korea pediatric cardiology Symposium (7/7~9) : 김정아 CNS

ACU

- 대전대, 대동대 간호학생 견학(7/5, 7, 12)
- 부서 워크샵 실시 (7/7)
-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간호관리자 세미나 (7/21) 참석 : 박○순
- 남자간호사 1박 2일 가평 여행 (7/24~25)
- 부서 Care Round (7/28)

RT

- 행복나누기 봉사활동 (7/1) : 서가진
- 제 12회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교육 (7/3~7/26)
- 호흡치료실 8월 업무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통관ICU	서가진	886241	
MICU2/SICU1·2	김윤영	886242	T.6244
일반병동	서희정	886244	

MAT

- 심폐소생술 위원회 (7/18) : 이진미, 신윤정
- 병동급성악화환자 관리 (7/6) 강사 : 최선희, 최은주
-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의 이해 (7/13) 강사 : 이진미
- 병동간호사를 위한 중환자교육 (7/25) 강사 : 한명자

2017년 상반기 "중환자실 돌격직원" 시상

쉽! 결했어요

※ 총 17명 (의사: 2명, 간호사: 8명, 조무원: 6명, 미화원: 1명)

부서	의사	간호사	조무원	미화원
MICU1		권선희	이경숙	
MICU2		노미진	맹봉식	
SICU1	신현우	양희승	김정아	
SICU2		송수진		
NSICU	이승주	김정한	김명미	
NRICU		김현경		
CSICU		이명주	손호	
CCU		박애라	심순명	이민영

* 하반기부터 소아, 신생아, 응급중환자실 포함

간호사 칼럼 | 나의 마법 "I am a nurse"

정연화 UM (115병동)

어린 간호사 시절 병동 환자를 중환자실로 전동할 때 초록색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산소를 적용하고 의식을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서로의 역할들을 지시하며 일사불란하게 응급 중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원하여 선택한 중환자실에서의 22년 세월!

처음 입사하여 발령받은 신경과 중환자실에서는 근무시간 내내 나의 소리에 반응 없어 보이는 4명의 환자들을 간호하다 집에 가는 길은 무언지 모를 답답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신경과 중환자실내 흉부외과 환자가 입실하게 되면서 환자들과 서로 얼굴보고 눈 마주치며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간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간호인지를 처음 알았다.

두 번째 외과계1 중환자실에서는 외상으로 붉은 피를 바닥에 뚝뚝 흘리는 환자와 그 환자의 심장을 마사지 하면서 중환자실 문을 들어오는 의료진, 그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그 시간 그곳 중환자실 모든 직원들은 온몸이 피범벅, 땀범벅이 되어 누군가는 병실 바닥에 도랑물처럼 흐르는 피를 쭈구리고 앉아 닦아내고 누군가는 팔이 떨어져라 온 힘을 다해 수액을 짜고, 누군가는 계속 약물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100미터 달리기 속도로 혈액을 나르고..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직원들의 위대한 에너지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심장내과 중환자실, 그곳만큼 심전도 모니터 알람 소리에 팔딱이는 물고기 만큼이나 벌떡벌떡 움직이는 간호사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람 소리에 번개같이 달려가 알람 주인공 환자의 침대위로 뛰어올라 가슴을 압박하는, 그래서 멈추려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간호사들의 놀라운 CPR실력에 24시간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로서 가장 멋진 최고의 순간을 보았다.

그렇게 보낸 시간들 속에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인지 그럴 때면 습관처럼 "I am a nurse. I am a nurse" 를 주문처럼 중얼거린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환자들 속에서 팔딱 팔딱 움직이고 있는 나를 보았다.

22년의 시간을 중환자실 3층에서 뜨겁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I am a nurse" 그 마법 같던 나만의 주문이었던 것 같다.

반응도 없고 몇 날 며칠 누워만 계시던 환자가 어느 날 아침 상두대에 턱을 괴고 눈을 뜨고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돌아보는 모습에 그 근무조 우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환자 앞으로 모여 말을 걸고 그 동안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지만 우리의 거친 환호에 비해 별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들을 처음 본다는 듯이 천진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분을 향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또 함박웃음을 날려주며 바쁜 각자의 환자 옆으로 다시 재빠르게 흩어지는 우리 간호사들, 늦은 밤 잠을 못 자는 환자의 말동무가 되어주기 위해 EMR cart를 아예 환자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일하면서 잠시라도 말동무가 되어주는 우리 간호사들, 떨어져 나온 피부각질이 날릴까봐 침대시트를 만지기가 두려울 정도로 개인위생이 불량한 환자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묵은 때를 밤새 벗겨 Day 근무자에게 하얀 침대 시트 위 뽀송뽀송 너무 이쁜 환자로 인계해 주는 우리 간호사들, 두 달 동안 격리병실 침대에서 병실 밖 건너편 커튼 너머 어쩌다 비치는 햇살로 기뻐하는 거동 불가능 환자를 위해 잠깐의 빈 공간으로 침대를 빼서 창 밖 햇살 가득한 풍경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간호사들..

감히 간호사이기에 할 수 있었던 간호들..

그런 소중한 간호를 22년간 3층 중환자실에서 배우고 익혀 이제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거만스런 자신감이 생길 즈음 병동으로 부서 이동 되어 지금은 병동에서 일하고 있다.

너무 다른 환경에서의 시작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듯 하지만 이곳도 역시 내가 간호할 환자가 있는 곳, 할 수 있다는 "I am a nurse" 를 또 주문처럼 중얼거려본다. 다시 힘이 난다. 특히 중환자가 발생되면 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듯 생기가 나고 기운도 생기고 물속인양 팔딱이는 물고기가 되어 버리는 나!

그러면서 생각한다. 지난 22년간 중환자실에서 함께 한 나의 리더, 나의 선배, 나의 동료, 나의 후배.. 참 좋은 사람들에게 잘 배우고 함께 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떠나와 살아보니 이제야 실감 난다고 그 감사함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나의 리더, 나의 선배, 나의 동료, 그리고 나의 후배님들!

마음을 전하는 책

내가 중환자실에 근무한지 10여 년… 그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다.. 조은미 연구간호사의 시집, 정연화 선생님께 받은 여러 책들, 임채만 실장님께 받은 성경책… 핑계이겠지만, 사실 한창 중환자 담당약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책을 펼쳐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지만 중환자실은 나의 병원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고, 소중한 곳이다.

특별히 제게 책을 전해주신 이남주 선생님은 그 시절 MICU 약사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던 내게 늘 따뜻한 말로 맞아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내게 정말 큰 힘을 주셨던 분이다. 책이 아니라 따뜻한 맘을 전해주신 이남주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전해주셔서 더더욱 기쁩니다.

이남주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책은 내가 그 당시 국민학교 시절에 TV 에서 방영하던 만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이라는 책이다. 어린 시절에 이 만화를 즐겨보고 주제가를 자주 따라 부르기도 했지만 빨강머리 앤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들 때문에 나는 늘 맘이 불편했었다. 그 상황을 당당히 맞서나가는 앤의 모습이 무척이나 억척스럽고 외롭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책을 통해 빨강머리 앤이 했던 대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만화 속 그녀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늘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었다. 코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한 나에게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요즘은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쌍둥이 육아와 병원 업무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에게 남겨진 기록이 별로 없다. 정말 불행하게 지금의 나는 무언가를 읽고 듣고 찍고 배우고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고민하고 생각할 여유도 별로 없다. [모든 요일의 기록:] 책에서 읽었던 문장들…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항상 깨어 있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 나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 고로 현재의 감각과 기억을 기록해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내 삶의 여유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중환자 담당약사로 일하며 만났던 중환자 간호사님들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만나면 항상 반갑다. 다들 꿋꿋하게 고된 병원 업무를 버텨 내고 병원에서 중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다.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툴툴거리며 바쁜 척하지만 맘이 여리고 고민이 많은 오성희 간호사에게 이 책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 힘내서 열심히 병원 다녀요. 선생님!

From. 정주원 약사 (약제팀)

To. 오성희 간호사 (CCU)

지호씨의 그린 라이트 | Meet Meat 1부

이지호 간호사 (MICU1)

상대는 넷이었다. 멀끔한 사람 둘,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 하나, 엄청나게 마른 사람까지. 우리도 물론 넷이었다.

뭐 그렇게 연애에 목말랐던 것은 아니다. 부딪히는 남자라고는 나만 보면 '6618이었죠?'하며 알아서 물건 값을 적립하는 동네 마트 아저씨, 이틀에 한 번씩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택배 청년,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담당의들 몇몇, 이성이라기보다 이제는 동료에 무지하게 가까운 남자 간호사들과 조무원들뿐이다. 아, 환자들 중 남자도 있었지. 그래, 그렇게 목말랐던 것은 아니었어. 그저 간만에 콧바람 쐬러 나온 것 뿐이야. 굳이 오프를 내서 나올 만한 건 아니었어. 우연히 쉬는 날과 미팅 날짜가 겹친 것 뿐이지. 뿌리염색도 계속 미루다가 그저께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꾸벅꾸벅 졸며 해치운 것 뿐이야. 그런 거야.

한 명씩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옮기는데 이 사람, 옹니네. 시옷 발음에 조금 샌다. 그렇지만 단어 구사력도 괜찮고 너무 길게 문장을 이어 붙이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약간의 상쇄가 되는 느낌이야. 신발은 보지 못했지만 그리 세련될 리가 없다. 엄청나게 단조로운 안경테가 그걸 반증하고 있지.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 오히려 다행이다. 억지로 꾸몄는데 저 정도면 취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다행인 거지? 김칫국 오지네요.

살집이 있는 사람은 벌써부터 콧잔등에 땀이 맺혀있다. 분명 고혈압일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근 십 년 안에 SBP 140mmHg 이상 나올 것이라 내 자신한다. 반면에 살결이 엄청나게 하얗다. 저 몸매에 흰색 셔츠를 자신 있게 입었고 세상에, 손수건도 갖고 있었다. 감색에 흰색 스퀘어 패턴이 있는 깔끔한 무늬로다가. 아까 자리를 고쳐 앉을 때 언뜻 풍기던 향수도 적당한 만다린 냄새와 바질 향이 났었다. 커피를 마시는 입술의 놀림도 무척 섬세했다. 와, 이 사람. 분명 하루에 팬티 두 번 갈아입는 타입일 것 같아. 대형 건조기도 구비해서 빨랫감을 완전히 바짝 말려 개켜놓을 것이야. 으으, 피곤해. 장마 때문에 쌓아놓은 내 티셔츠들이 애처롭다.

내 차례가 되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단조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튀거나 너무 수줍어도 별로인 시장이니까. 첫인상이 한 사람을 규정짓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편견의 동물이다. 뭐든 적당한 것이 좋다. 무난해야 살아남는 한국이기도 하고.

3년차 간호사입니다. 타성에 젖기 직전인 연차에요.

아뿔싸, 뭔 소리를 한 거야. 타성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꼰대가 되게 싫지만 되어 가고 있다고 아주 고백 같은 걸 해버리고 난리냐. 잠깐 눈치를 살핀다. 다행히 알아챈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멀쩡남 둘은 우리 중 가장 어린 친구에 정신이 팔려있고, 마른 남자는 눈을 잘 못 마주친다. 그런데 살집남이 슬쩍 나를 보며 입술을 올렸다. 넌 알아챈 거냐. 타성이라는 단어를 나와 적확한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좋지만, 나까지 파악했다고 단언하지는 말아줘. 그렇게 관상처럼 단번에 파악되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리고 댁은 나보다 다 하얘. 내 검은 피부가 창피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의 난 조화를 더 추구하려 한다고.

갑자기 다들 웃음이 터졌다. 나와 동기인 아이가 뭔가 시원한 농담을 한 모양이었다. 얘는 사실 썸 타는 남자가 있다. 그것도 사귀기 직전인. 매사 즐겁고 코믹한 타입이라 남사친이 즐비한 아이다. 연인 직전인 상대에게 이브닝이라고 듀티를 속이고는 우리를 위해 나와 주었다.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기쁨조를 할 거라며. 나이 대를 보건대 아마도 상대 쪽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다행히 먹혔다. 이렇게 희생이란 숭고한 것이다. 흐뭇한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았다. 어머나, 너 윗니에 립스틱 묻었다. 이를 어쩌니.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한다. 넌 팔리러 나온 게 아니니까. 하하하, 재밌다. 얘.

마른 남자가 눈을 들었다. 나를 보고, 젊은 아이를 보고, 웃기는 내 동료를 보고, 나보다 일 년 먼저 들어온 선배를 보았다. 아, 뭔가 누리끼리하다. 눈알의 흰자도 그렇고 피부색 또한 그렇다. 선배를 쳐다보았다.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긴 호흡을 하고는 갑자기 말을 거는 선배.

요새 피곤하시죠? 좀 그래 보여요.

현 시대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미소를 띄우며 반문하던 그의 대답은 뒤로 한 채, 선배는 갑자기 환자를 상담하는 간호사 모드를 발동시켰다.

간기능 검사 해보셨어요? 동네 내과가면 금방 할 수 있고, 간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아, 이 여자야. 그러지마. 제발. 이런 데서 티 내지마. 저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러 왔지 건강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런 모드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 뒷목에 땀이 나며 손발이 갑자기 오그라드는 가운데 삽시간에 이 카페는 건강상담실로 바뀌었다. 멀쩡한 남자 중에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말했다.

저도 엄청나게 피곤해요. 자도 자도 계속 졸려요.

그건 그냥 네가 잠이 많은 거야! 이 잠만보야! 그냥 계속 자. 안 졸릴 때까지. 그럼 안 졸려. 그나저나 '졸리다'고 표현하는 것 보니 수도권 태생임이 분명해. 남부 지역은 '잠 온다'라고 한다. 깍쟁이 서울 태생일까. 손도 곱게 생겼다. 특히 집게 손톱이 정말로 곧다. 넌 이제부터 집게남이라고 명명한다.

갑자기 살집남이 나를 바라보더니 뭔가 끄집어 내듯 말을 붙인다.

그런데 간호사가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그냥 말아먹을 꼰대가 되는 거지.

이 표현을 반드시 순화시켜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해 너를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해야 해. 애매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저 남자는. 일단, 웃으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척하며 짱구를 굴려보자.

그게 말이죠...

2부로 이어집니다.

생각의 방 & 고객의 소리

윤지혜 간호사 (NSICU)

※ 이 글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어느 간호사의 글입니다.

암 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할 때였다. 새벽 다섯 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부리나케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 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 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 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 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삼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선생님, 혹시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환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달의 논문

전상범 임상부교수 (신경과)

ECMO 환자의 미세출혈: 새로운 유형의 뇌졸중?

Documenting the invisible in stroke-like symptoms dur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Kim HJ; Jeong S; and Jeon 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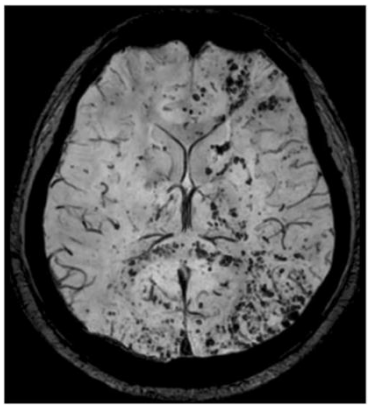
Intensive Care Med. 2017 Apr;43(4):566-567

본 연구자들은 CPCR 후 의식이 회복되었으나 일주일 후 갑자기 신경학적 악화가 발생한 환자를 진찰하였다. 신경학적 진찰에서 경미한 의식저하, 심한 언어장애, 좌측 안구편위, 우측편마비가 관찰되므로 좌측 대뇌반구를 침범한 뇌졸중이 의심되었다. 환자는 ECMO 적용 중이므로 이동 검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 CT를 촬영했다. 하지만, CT에서는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뇌내출혈은 배제되므로 급성 뇌경색(악성중대뇌동맥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뇌파 검사도 시행했지만 경련파는 관찰되지 않았다. 6일 후 ECMO를 중단한 후 시행한 routine MRI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매우 희귀한 사례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 (SWI)라는 최신 영상 기법으로 MRI 검사를 진행했을 때 수백 개 이상의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이 관찰되었고, 특히 좌측 대뇌반구에서 많이 보였다. 이로써 본 환자의 증상은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다행히, 환자는 수 주에 걸쳐 점차 호전되었고, 퇴원 당시 뇌졸중 증상은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SWI는 탈산소화된 헤모글로빈에 매우 민감한 특성으로 인하여 미세출혈을 발견하는데 가장 유용한 MRI 영상 기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촬영하면 CT나 일반적인 MRI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미세출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환자에서 미세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난 수년간 보고하였다[뇌내출혈(J Neurol, 2007), 뇌경색(Neurology, 2009), 심장판막수술(Cerebrovasc Dis, 2010), 뇌전증지속증(Epilepsia, 2013), 지주막하 뇌출혈(Neurosurgery 2014)].

ECMO 환자에서 미세출혈이 발생하는 기전으로는 항응고제 사용, DIC 동반, 인공 membrane을 통한 용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인공 membrane은 용혈 외에도 혈소판 손상, 염증세포 활성화, 지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을 추정된다. 본 환자의 경우, CPCR 에 따른 blood-brain barrier 손상도 미세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수 있다.

현재의 뇌졸중 분류 체계에는 뇌경색,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정맥혈전증에 의한 뇌졸중만 포함되어 있다. 본 환자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 영상기법으로 뇌 미세출혈이 발견되었다. "미세출혈에 의한 급성 신경학적 증상"이 더 많이 보고된다면, 이를 "뇌졸중"의 새로운 유형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SWI에서 검게 보이는 작은 점들이 바로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이다. 참고로 검은 선들은 뇌혈관에 해당한다.

★유익한 생활 정보★

윤지혜 간호사 (NSICU)

여름 축제 안내

신촌 물총 축제

'도심 속 피서'의 대표 주자인 신촌 물총 축제는 '축제로 대한민국을 더 즐겁게 만들자'라는 비전 아래 매년 신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컨셉은 지구인 vs 외계인! 남녀 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촌 물총 축제 함께해 볼까요? '17. 7. 29(토) ~ 30(일) / 신촌 연세로 일대

포항 국제 불빛 축제: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제철소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테마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에 맞춰 시작된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매년 시내 전역에서 포항만의 '불과 빛'을 만날 수 있으며, 형산강과 영일만 바다의 아름다운 야경을 무대로 약 10여 만발의 불꽃이 아름답게 펼쳐져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7. 7. 26(수) ~ 30(일) / 국제불꽃쇼 : 7. 29 / 형산강 체육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

철원 화강은 더불어 사는 평화마을을 비전으로 한 '쉬리 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꽃이 피는 화강으로의 가족여행, 마음 속 가득한 행복을 담는 질그릇 같은 고향인 철원 화강의 다슬기 축제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17. 8. 3(목) ~ 8. 6(일) / 김화읍 쉬리공원(화강) 일원

맛집 소개

현지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너무 생각나는 오늘! 서울에서 즐겨볼까!

베트남

제대로 된 분짜, 분보남보, 스프링롤을 즐기고 싶다면?

'비엣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4길 20

☎ 02-744-1868

싱가포르

점보 레스토랑 칠리 크랩이 생각나요!

'팬아시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4길 28

☎ 02-541-7940

이탈리아

야심한 밤에 즐기는 파스타,

술안주로 즐기는 트러플 파스타

이탈리아 선술집 **'오스테리아쿠촐로'**

서울 용산구 신흥로 30-1

☎ 02-6083-0102

중국

제대로 된 훠궈가 먹고싶다면?

'복만루'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52

☎ 02-456-1779